



# 자비의 법회 통해 세계 평화 기원

## 달라이 라마 일본 방문

인류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세계적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8일 일본을 방문, 그를 환영하는 수많은 불자들을 만나 생생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설했다. 달라이 라마의 법석에는 매번 수천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으며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배우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달라이 라마의 4월 8-14일의 일본방문 일정과 법문을 요약했다.



4월 8일 메이지신궁 방문



4월 13일 렌제인사 대중법문 현장

평화와 자비를 살리기 위해 일본을 찾은 달라이 라마. 그의 법문은 수많은 일본인들의 삶에 한줄기 감로수가 됐다.

### 4월 9일 도쿄 코쿠기칸 대중법문

#### "남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

달라이 라마 방일 일정 첫 번째 대중법문은 '자비와 인류정의' 주제로 4월 9일 도쿄 코쿠기칸 스모경기장에서 열렸다. 6천여 불자들은 달라이 라마가 입장하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를 맞았다.

달라이 라마는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법문에서 "인류가 지닌 자비는 '착(善)이 없는 사람'이다"며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배려하는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자비심은 남을 위한 배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 결국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라며 "이 힘이 모여 인류 권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 10일 쿠마모토현 강당에서 '세계평화' 주제법문 요약

#### "평화는 개인 내면에서 비롯된다"

오늘 법문 주제인 평화는 삶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자비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자비와 평화는 타인을 나처럼, 나아가 자신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란 개인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자비심이 생기고 타인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다. 내 평정심을 통해 내 주변이, 가족이,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

세계의 평화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이뤄질 수 있다. 개인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서서히 온 마음을 다해 평온함과 편안함에서 얻은 그 힘을 점점 더 키워 나가라.

우리 모두의 평화는 갈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수 없다. 오늘날의 갈등은 각자 다른 현실에서 비롯돼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갈등과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은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갈등과 폭력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갈등관계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진심 어린 행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갈등을 빚은 마음을 풀기 위한 대화의 실천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세대와 세대, 사회 구성원 간, 나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화가 결국 온 세계의 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여기에서 곧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이 하는 말, 타인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와 닮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하게 돼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로 오해의 여지



4월 9일 달라이 라마는 도쿄 코쿠기칸 스모경기장에서 '자비와 인류 정의'를 주제로 법문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날 법회에서 '자비는 집착 없는 사랑'임을 강조했다.

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갈등요소를 없애는 해결책이다.

지난날 인류는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정치적 감정적으로 전쟁보다 나은 방법을 분명 선택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비폭력, 반전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직도 기독교 등 몇몇은 전쟁이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 평화를 향한 움직임만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다. 평화의 실천은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크고 작은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할 것을 당부한다.

### 12일 큐슈간후 복지대학 특별강연

#### "다른 이들 사랑하는 삶을 찾으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젊은이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이타심과 자비행을 통해 남을 배려할수록 자신이 얻는 것이 크다."



달라이 라마는 4월 12일 오전 큐슈에서 법문을 한데 이어 오후에는 일본사찰 오쿠노인지에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법문을 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4월 12일 오전 쿠마모토현 큐슈간후복지대학 특별강연에 모인 1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타심을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며 "나 역시 어린 시절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삶이란 행복과 고난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 13일 렌제인사 탄조유지사 특별법회

#### 전쟁희생자들 추모법회 직접 집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전쟁희생자를 추모하는 특별 법회가 4월 13일 오전 일본 쿠마모토현 타마나시 렌제인 탄조유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일본불교의 전통과 티베트불교의 예불의식을 혼합함으로써 현지 언론과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특별 법회는 달라이 라마의 집전으로 남방불교 전통을 따라 진행됐다. 먼저 인도식 램프에 깃발을 태우는 의식을 통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전쟁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랬다. 이후 렌제인사 에이쇼우 카와하라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1천 여 일본불자들이 더불어 빈아심경을 독송하는 일본불교 방식으로 법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14일 카나자와 고마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방문의 목적은 순수한 포교활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한성회 기자

### 달라이 라마 메이지신궁 등 신사참배

#### "일본 문화 · 전통에 대한 존중의 표시"

달라이 라마의 일본방문이 제국주의 뿌리인 메이지신궁 방문으로 시작된 것을 둘러싸고 불자들의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달라이 라마는 4월 8일 일본에 도착해 이날 오후 도쿄 시내 메이지신궁을 방문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 미국 부시 대통령 등 주요인사의 신사참배는 지금까지 국적과 지위를 떠나 세계 여론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뿌리인 메이지신궁 방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기자들도 이를 앞 다퉈 취재해 갔다.

달라이 라마는 이에 대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적 가치에 있다"며 "내 행동은 신사참배가 아니라 방문국인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에도 쿠마모토 현 아소신사를 방문했다.

## 홍원사 대응전본존불 점안법회

유서 깊은 자리, 지극한 불심으로 창건한 근본불교 수행도량 가양동 홍원사,

천년을 넘게 지켜온 범패전통의식으로 대응전 본존불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복장의식과 신중탱화 석가모니불 점안식이 이어지는 보기 드문 점안법회에 동참하시어 봄처럼 아름다운 불연을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 증명법사 고우대선사 도월수진스님
- 회 주 동주원명스님
- 주 지 성오스님
- 후 원 사단법인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 신도회, 성전거사림 가족법회

### 안 내

- 4월 28일 오전 10시 원불 복장의식
- 4월 29일 오전 10시 104위 신중탱화 점안
- 4월 30일 - 1부 (오전 8시~10시 30분) : 대응전 본존 석가모니불 및 원불(소불) 점안식
- 2부 (오후 2시) : 영산재 및 선망부모 회향시식

- 본존 석가모니불 점안 증명법사 및 법문 : 고우 큰스님 (각화사 선원장)
- 복장의식 증명법사 : 도월수진스님(전통 점안 복장의식 계승)
- 전통 점안의식 법법사 : 동주원명스님(조계종 영산재 어장)

근본불교 수행도량에서 봉행하는 복장의식 및 점안의식은 천여년 동안 전해오는 전통의식으로 봉행하기 때문에 복장의식의 맥을 이은 도월수진스님과 조계종 영산재 어장인 동주원명스님을 모시고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법대로 엄히 봉행합니다. 4월 28일 원불(소불) 부처님 복장의식은 공개치않는 행사이나 일반신도님들께 불연을 맺으실 기회를 드리고자 복장의식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점안식 또한 조계종 영산범용회 어장인 동주스님의 집전으로 수재자와 함께 전통의식을 재현 합니다. 4월 30일 대응전 본존 점안식에 증명법사로 모신 고우큰스님의 법문에 많은 선망선녀 신도님들의 청빙의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4월 30일 오후 2부에는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 ※ 버스노선 안내 (버스 내리는 곳은 모두 향교앞 정거장입니다)

- 5622 : 가리봉시장-가양사거리-향교
- 6631 : 영등포역-영창동-향교
- 6630 : 영등포역-발산역-향교
- 6632 : 당산역-강서보건소-향교
- 6712 : 영등포수도사원-양화대교-향교
- 6644, 6642(마을버스) : 발산전철역 3번출구로 나와서 타세요.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 (가양 사거리 양천향교 앞) 전화 02)2658-3100 / 팩스 02)2063-3344